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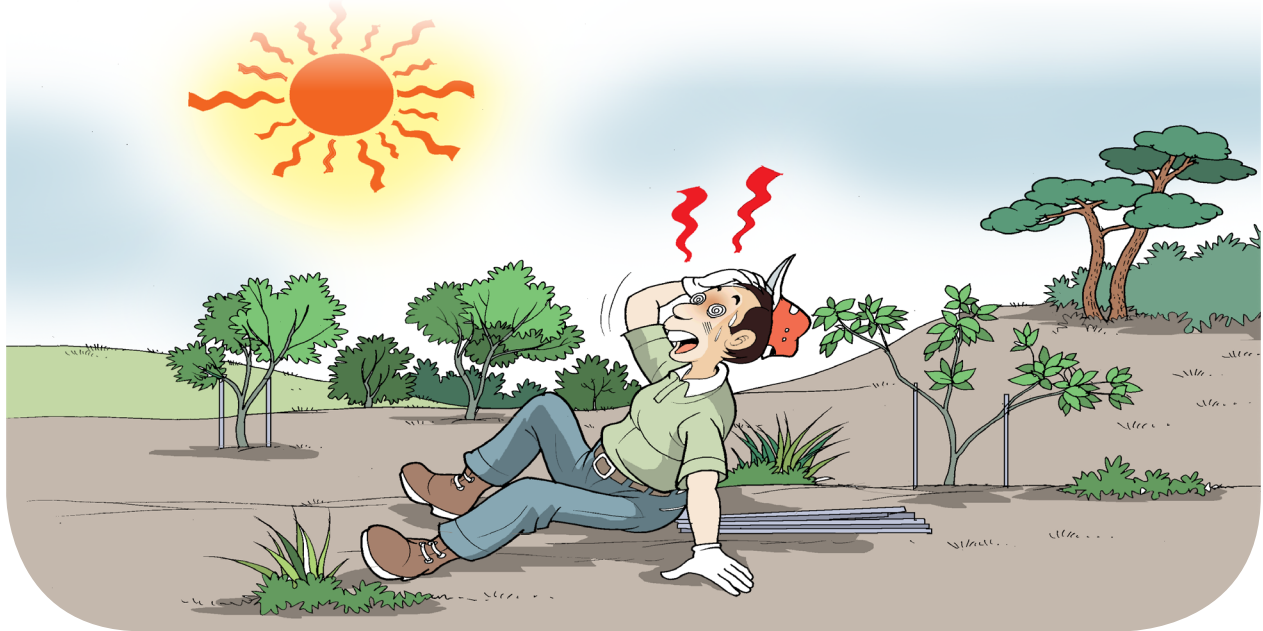
재해사례

(폭염)

야외 고온작업 중 열사병으로 사망



8월 여름철 과실수 농장에서 과실수 지지용 금속막대(고춧대) 설치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직사광선에 노출되어 쓰러진 후 동료작업자에게 발견되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



재해발생 원인

- 그들이 없는 야외 작업장에서 지속적으로 고온다습한 환경 및 직사광선에 노출되어 작업자의 체온조절 장애로 열사병 발생

※ 재해 당일 기온 및 상대습도(기상청 제공 관측자료)

구분	8H	9H	10H	11H	12H	13H	14H	15H	16H	17H	18H
기온(℃)	28.7	30.4	31.9	33.4	34.8	36.4	36.6	36.0	35.7	35.6	34.3
상대습도(%)	-	67	-	-	55	-	-	42	-	-	59

※ 열지수(위험) 계산 결과 : 42.2~46.4(12H~18H기준)로 보통사람이 열에 지속적으로 노출 시 열사병, 열경련, 열피폐 위험이 높은 수치

※ 열지수(Heat Index) : 날씨에 따른 인간의 열적 스트레스를 기온과 습도를 함수로 표현

재해예방 대책

- 야외 고온작업 환경에 따른 건강장애 예방 철저
 - 작업환경이 그들이 없는 임야 작업장이므로 천막 등의 그들이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휴식 및 수분과 염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물과 소금 등을 비치
 - ※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매 15분 간격으로 수분섭취 권장
 - 작업자 간 의사소통을 통해 의식혼미, 현기증 등의 증상을 수시로 확인



참고법령 및 기준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(휴식 등), 제567조(휴게시설의 설치), 제571조(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)



여름철 고온작업 건강관리 요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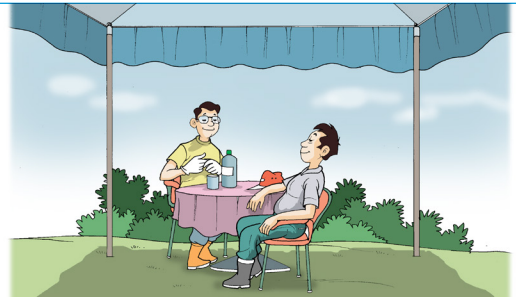
- 고온에 의한 건강장해 : 고열장해의 대표적인 질병은?

유형	발생원인	주요 증상 및 소견
열피로 	- 고열 환경으로 인한 혈관장해 (저혈압, 뇌산소 부족)	- 두통, 현기증, 급성 신체적 피로감, 실신 등
열사병 	- 체온조절 장애 - 고온다습한 환경에 갑자기 폭로될 때	- 현기증, 오심, 구토, 발한 정지에 의한 피부 건조, 허탈, 혼수상태, 헛소리 등 - 체온 40℃ 이상

- 현장 준수사항 : 무더운 여름! 작업시간을 줄이고, 물과 휴식이 필요합니다!



규칙적으로 물을 마시세요



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세요



고열 장해 예방 교육을 하세요



응급상황 대처요령을 수립하세요

-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 : 당신의 동료가 고열장해 증상이 있다면?

- 119 신고 및 관리자에게 연락
-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응급치료 시작
- 그늘로 옮긴 후 체온을 식힘
- 토하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물 제공
- 착용한 옷을 느슨하게 하고, 부채질 및 시원한 물로 옷 적셔 주기